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지혜서 7,7-11 화답송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4,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0,17-30

성가 | 입당성가 [18] 1,2절 예물준비 [218]
 영성체 [504] 파견 [258]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신균 요한	익명
이신균 요한	장혜윤 크리스티나
양필순 아녜스	유승진 프란치스코
김정우 시몬	이수산나
강경대 마리아	가족
이영화	이미숙 안나
생미사	봉헌
이서원 마리로사, 이남석 가정이	장혜윤 크리스티나
서원 마리로사, 이남석 가정	이은경 헬렌
이서원 마리로사, 이남석 가정	익명
윤순기 가말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박혜화 도미니카	장혜윤 크리스티나
박혜화 도미니카	안선정 마리안나
조성자 데레사 궤유	익명
조성자 데레사 영명축일	한안나, 데레사
노희정 데레사 영명축일	박울리바
한서희 데레사 영명축일	박크리사
한서희 데레사 영명축일	복사단
송임경 안나 생일	송명근
김유화 데레사 영명축일	한안나, 데레사
임영애 스텔라	푸리아
김기례 레지나	푸리아
강혜숙 바울라	푸리아
김차순 마리아	푸리아
노사비나	푸리아
김리나 막달레나	푸리아
경재순 가말라	푸리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월 6일	조소연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10월 13일	장혜윤	김규현	고은경	고은경	민덕미	최사도요한 한데레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달동안 08시 50분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꾸리아 주재.

10/13	우리즐거움의 원천 Pr.(진서윤)
10/20	구세주의 모후 Pr.(유정옥)
10/27	우리즐거움의 원천 Pr.(이기원)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미사후 연령회: 아랫성당

▶연령회 야외 행사: 애플픽킹

날짜: 10/12(토) 출발: 09시, 31번가 브로드웨이 코너

장소: Minard's Family Farm. Clintondale, NY

*아침식사로 샌드위치 준비됩니다.

▶김가롤로 신부님을 위한 영적예물

오는 11월 3일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신부님을 위한 영적예물

받습니다. * 묵주 기도: 개인당()단, 미사: 개인당()번

* 단체장들은 회원들의 기도를 모아 사무실앞 수거함에 넣습니다.

▶전신자 묵주기도 500단 바치는 날

일시: 10/20(일) 미사직후~ 5pm, 아랫성당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반(2,4째주)	10am~11:30am	교육관 B1 Fr.김가롤로
------------	--------------	-------------------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사도행전~요한묵시록

주일반(매주)	12:40pm~1:50pm	교육관 3A
목요반(매주)	10am-11:20am	Sr.김효주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세요.”

교리 첫만남: 오늘(10/13) 11시, 교육관 3A

*오늘 미사후 성당뒷문에서 봉사자를 따라 이동합니다.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부활시기

신청: Sr.효주 347.834.5784

▶교리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일시: 10/20(주일) 오후 2시 30분, Sr.효주 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14차 성장세미나, 성령안에서 영적성장 원하시는분

일시: 10/27(일)~30(수), 3박4일 장소: 마리안 쉬라인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미숙안나 917-579-5072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 정다경마리아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

일시: 10/12(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미사지향 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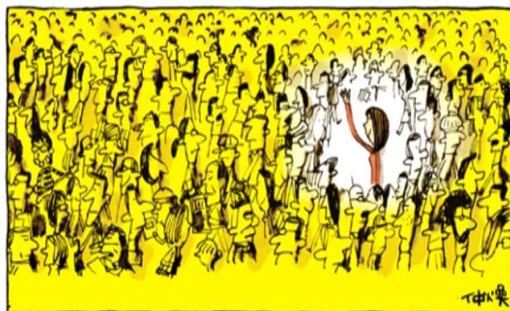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by 황중환

기적이란

지구 인구 80억 명 중에

우리가 만난 것!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옥토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WONJO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됨)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연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꾸리아 성지순례



레지오마리에 ‘은총의 샘’ 꾸리아(단장 윤숙자 루시아) 성지순례가 10월 5일 The National Shrine Black Madonna of Poland에서 진행되었다. 미사, 성지순례, 까떼나, 묵주기도 20단 봉헌 등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행동·협조단원등 23명이 참가하여,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더하고, 서로 간의 친교를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단원들의 순례 소감〉

“혼자 방문하기 힘든 성지를 꾸리아에서 함께 방문할수 있게 되어 감사했고, 오고 가는 길의 청명한 가을 하늘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힐링되었다.” “성지에서 드리는 미사는 많은 감명과 은혜, 벅찬 마음이었다.” “성지내 성모님 얼굴의 칼자국을 보며,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때 늘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느꼈고, 충실히 참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